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계속되는 중동 위기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은 충분한 기초체력 보유, 시장참여자들의 합리적 대응 당부

'24.4.19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내외 금융여건과 시장 상황을 점검하였다.

- (일시·장소) '24.4.19(금) 15: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자본시장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감독원(수석부원장, 금융시장안정국장), 한국거래소(코스닥본부장, 주식시장부장), 국제금융센터(부원장, 종합기획분석실장) 등

4.19일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 약화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소식에 따른 중동 긴장 고조 등에 따라 아시아를 중심으로 주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우리 금융시장도 다소 큰 변동성을 보였다.

	4.17		4.18		4.19
코스피	2,584.18	→	2,634.70	→	2,591.86
코스닥	833.03	→	855.65	→	841.91
원달러 환율	1,386.80	→	1,372.90	→	1,382.20

※ 4.19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 등락률(%) : (니케이 225) △2.66, (대만 가권지수) △3.81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동 위기 국면이 이어지는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내 채권·단기자금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주식시장의 경우 전 세계적인 위험 선호 약화와 달러 강세의 부담 등으로 지수 하락폭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일시적 대외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강한 만큼, 중동 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국내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흐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김주현 위원장은 글로벌 금리 흐름과 중동 사태 전개 방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면서, 각 시장별 위기대응계획과 시장안정조치 운영상황을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 [참고] 4.15. 긴급시장점검회의시 금융위원장 지시사항

- ①중동사태의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②시장 불안 발생시 이미 가동 중인 94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
- ③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가 대책 마련

또한 김 위원장은 ①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고, ②금융시장의 핵심적인 자금중개기능들도 원활히 작동하고 있으며, ③정부와 금융권이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충분한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참여자들도 시장 여건 변화에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들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될 때까지 집중적인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제반 조치들이 즉각적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성준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진성익	(02-2100-2852)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전국	책임자	국 장	이 진	(02-3415-8170)
		담당자	부국장	김정훈	(02-3145-818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	책임자	부 장	송기명	(02-3774-8580)
		담당자	팀 장	이정현	(02-3774-8530)
	국제금융센터 종합기획분석실	책임자	실 장	안남기	(02-3705-6232)
		담당자	책 임	황유선	(02-3705-6232)